

20호, 2020년 3월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서울숲 권서번시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순환하는 서울숲 2탄] 공원도 유기농 합니다

서울숲에 자연펭귄이 나타났다?! 펭-하!

서울숲 다시보기

[서울숲학교 식물세밀화교실 리뷰]
식물세밀화를 통해 식물과 관계 맺기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순환하는 서울숲 2탄]

공원로 유기농 합니다



서울숲은 지속가능한 공원운영을 위해 기획한 '순환하는 서울숲'의 일환으로 공원에 맞는 유기농법을 실험·개발하고 있다. 공원의 자연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공원에서 다시 사용하는 일명 '서울숲 퇴비 프로젝트'는 공원의 자연부산물과 지역 카페의 커피찌꺼기로 퇴비를 만들고, 다시 그 퇴비를 공원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다. 기업의 후원으로 퇴비장을 조성하고, 공원에서 버려지는 식물 쓰레기, 동물의 분변을 재활용하고, 지역 네트워크 카페의 커피찌꺼기를 기증받아 퇴비를 만든다. 이후에는 퇴비 만드는 과정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행하고, 퇴비 만드는 원리를 알려주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는 데까지 발전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인증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실험과 개선을 거듭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다.

퇴비 프로젝트에 이어서 올해는 공원에 맞는 천연농약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실험을 시작한다.

공원에서 사용하는 화학 농약을 대체하기 위해 은행 열매와 잎 등 공원의 식물 부산물과 흙(부엽토), 기타 천연 재료를 배합해 농약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숲은 서울숲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최대한 쓰레기가 되지 않고 공원에서 쓰이는 착한 순환의 구조를 만들면서, 더불어 서울숲 방문객, 동·식물, 토양 등 도시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회복에 기여할 더 나은 녹지관리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퇴비 만들기부터 지금의 천연농약에 이르기까지, "순환하는 서울숲"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성환, 이우용 매니저를 만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우용 매니저

김성환 매니저

연구실 같은 분위기일줄 알았더니 체험 삶의 현장 분위기다. 은행 냄새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김성환 이렇게 지독한데 벌레가 안 죽겠나? (웃음) 지금 은행 열매 삶은 물로 살충제 만들고 있다.

재작년에 서울숲 자연부산물로 퇴비를 개발하고, 올해는 천연농약을 개발하는 걸로 안다. 공원이 유기농을 하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우용 공원의 나무들은 식물 생산의 목적만을 가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의 쉼터가 되고,

많은 동물들이 서식처가 된다. 방문객 안전과 공원의 생태계를 고려하면 공원을 유기농으로 가꾸고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국내 공원에서는 처음 하는 시도다. 우리가 잘 해야 다른 공원들도 따라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성환 방문객의 안전이나 사람들의 인식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거였다. 생태계라는 게 서로 맞물려서 순환하는 거고, 어느 한쪽이라도 밸런스가 깨지면 결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화학농약은 효율적이긴 해도 땅 속 작은 벌레나 토착 미생물까지 다 죽인다. 그러면 약순환이 된다. 인간이 손 댄 자연이기 때문에 어느 한 균이나 벌레가 대량발생을 하면 이제 그때서야 약을 치고, 그러면 이로온 벌레, 미생물까지 다 죽고, 그럼 또 다른 게 대량발생, 그러면 또 약... 생태계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런 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약순환을 깨고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기농을 생각하게 되었다. 소동물이나 곤충, 미생물, 이런 생태계가 순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순환하는 서울숲'은 자원 순환(재활용)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공원에서는 식물 생산을 위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쓸 거라고 생각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약도 있다고 들었고, 유기농약도 있다. 천연농약을 생산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도 얼핏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김성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비하면 공원이 농약을 덜 쓰기는 하겠지만, 우리 공원을 포함한 공원과 녹지, 가로수 등에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는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한다.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들어오거나 기후변화로 인해 단일종이 대량 발생하는 등, 녹지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일부러 이야기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관심을 덜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퇴비 프로그램처럼 인식을 만들고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우용 (화학)농약을 치면 되게 편하고 사다가 쓸 수 있고 예전에는 비용도 덜 들었다. 근래에는 유기농법도 많이 개발이 됐다. 지금은 비용이 많이 낮아져서 오히려 저렴한 것도 있다. 유기농약을 사서 써보기도 했는데 효과가 너무 떨어졌다. 농약이라는 게 토양 개선제, 살충제, 살균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농약은 공원에서 나고 자란 식물 부산물, 토착 미생물이 살아 있는 공원의 자연 부산물과 흙 등을 가지고 만든다. 여기 땅에 맞는 농약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이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천연농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김성환 우용님이 이야기한대로 토착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미생물액을 만든다. 공원의 부엽토를 삶은 감자, 소금, 물 등과 섞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만들어 사용한다. 토양 감염, 오염을 예방하고 식물의 뿌리가 강해지도록 토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말고도 은행 등을 삶아서 살충제를 만들고, 흙과 소금, 유황 등을 섞어서 살균제를 만들고 있다. 이것들이 다 완성되면, 흙이나 식물에 잘 붙어서 효과를 높이는 매개인 전착제(오일)도 천연의 재료로 만들어 섞어서 사용한다. 천연농약 개발이라니 듣기에는 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도 여기저기 자료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낸 것들이고 아직은 해보는 단계다.



이우용 아무래도 처음이고 미숙하다보니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많다. 가성가리와 가성소다를 혼돈해서 전착제를 만들려다가 의도치 않게 비누를 만들게 되기도 했고... 그것도 나름 천연비누니까 공원에서 쓰고 있다. (웃음)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돌아보면 '우당탕탕 농약이야기' 같은 느낌이다. (웃음) 은행을 끓일 때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았던 바람에 그 물이 발효가 돼서 농약 담은 플라스틱 통이 폭발할 뻔한 적도 있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험할 뻔한 일도 있었고 그렇다.

김성환 ‘통 폭발’ 이야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렇게 만든 농약은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미리 통에 담아놔야하지 않나. 담는 병도 사실 사야하는 건데 환경팀과 협력해서 공원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물병을 모아 사용했다. 공원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 플라스틱 물병을 세척해서 사용하니 이것도 공원의 것을 공원에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성공해서 질 높은 천연 농약이 서울숲에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게 되면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순환하는 서울숲 3탄도 좋고 개인적인 계획도 좋다.

이우용 서울숲에 은행나무가 되게 많다. 한 1,500주 있다. 나무가 크면서 점점 더 많은 은행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은행이 날새 때때 민원이 많아 공원이나 지자체에서 은행이 열리지 못하게 줄기를 다 자르거나 수그루로 교체하기도 한다. 서울숲은 자르거나 없애는 대신에 은행을 활용할 수 있게 프로세스, 레시피를 만들어서 다른 공원들에 전파시켜주고 필요하면 은행까지 패키지로 줘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일 좋은 건 그거지만 아무래도 이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완제품으로 나눔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김성환 사실 다른 공원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공원은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줘도 효과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우용 맞다. 오히려 유기농업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비영리고, 민간단체고, 그래서 뭔가 시도하는 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이게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면 성과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실험해볼 수 있단 거다. 이번 천연농약도 그렇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는 공원은 별로 없을 거다.



김성환 이거 다음으로 지렁이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렁이 같은 익충이다. 퇴비프로그램 하다 보니 지렁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 퇴비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다. 산림청이나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는 아예 지렁이 하나만 갖고 프로그램을 할 정도로 지렁이는 중요한 익충이다. 그래서 지렁이 관련된 프로그램이랑 퇴비프로그램을 시리즈로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화학 농약을 많이 쓰면 그 토양에서는 지렁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렁이를 죽이지 않는 유기농업, 지렁이가 살기 좋은 퇴비, 그리고 지렁이.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순환하는 서울숲이’ 그리는 그림이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해서 다른 도시 공원들로 확장, 복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성환 이게 우리도 아주 의미가 있고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중이기는 한데 아직은 공부하고 실험하는 단계다. 관심을 가지고 길게 지켜봐주면 좋겠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활동(노동)도 응원하겠다.

[단독] 서울숲에 자연펭귄이 나타났다는데...?!



불신 가득한 도시 생활에 지친 펭수가 속세와의 인연을 접고 자(이)연(트)펭귄이 되어 서울숲 자연으로 와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산삼콘과 싱싱한 사만코 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이지 반갑고 기쁜 만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도시 생활에 지치면 언제든지 다시 놀러와 펭수야~ 펭랑해~~ 펭러뷰~~♥♥♥♥

자연펭 이야기를 아직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이인트펭 TV** 에서 영상을 확인하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이 또 저를 사랑하고♥



서울숲

펭-하!



[서울숲학교 식물세밀화교실 리뷰] 식물세밀화를 통해 식물과 관계 맺기!

식물세밀화(植物細密畵, Botanical Illustration)

식물 연구의 산물로서 정리된 식물체에 대하여 살아있는 식물의 해부학적인 미세한 구조를 비롯하여 사진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나 모양의 묘사까지도 가능하며, 식물학적 측면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물론 작가의 예술적 감각이 회화적인 요소로 가미됨으로서 식물의 아름다움을 더 한층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예술작품.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식물세밀화소개 中

식물이 겨울잠을 자던 지난 1월, 서울숲에 사는 식물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식물세밀화교실'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은 식물의 꽃도, 잎도 보기 어려운 시기인데 하필 이런 때에 식물을 그리는 수업을 시작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식물덕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겨울이야말로 식물의 진정한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기이며, 색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서울숲에 사는 식물을 그리기 위해 모인 9명의 식물덕후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소개합니다.



지난 1월 8일, 하얀 입김을 뿜으며 9명의 수강생이 모인 교실에서, 국립수목원 세밀화가이자 식물세밀화교실 강의를 맡은 조혜련강사가 본인 소개를 마치고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사진 찍으면 되지 왜 굳이 그림으로 그리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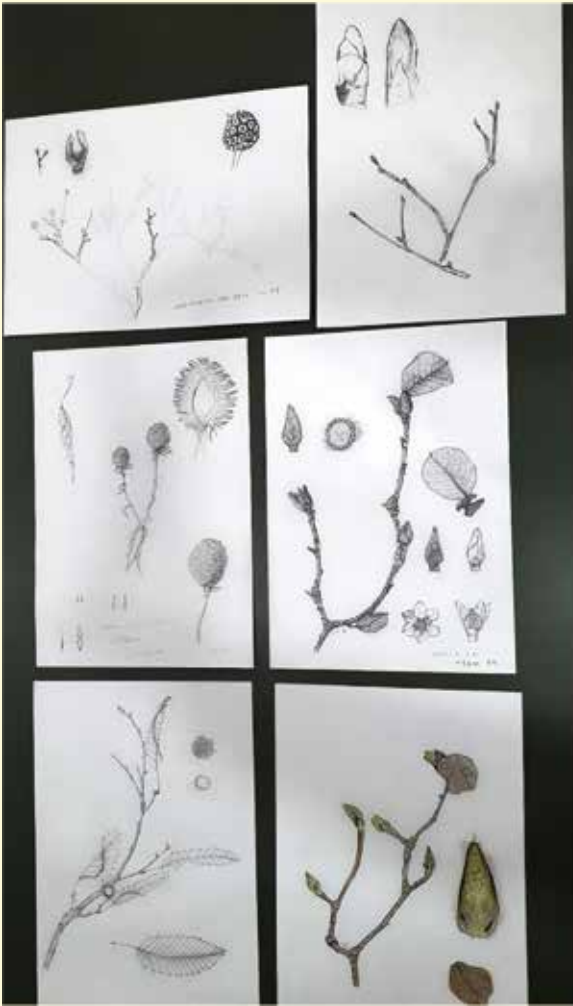
이렇다 할 대답이 나오지 않자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식물세밀화는 예를 들어 꽃이면 꽃을 자세히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꽃 안의 암술, 수술 등과 같은 모든 기관을 그리거나 일부를 강조해서 그리고, 각 기관의 계절별 변화까지 한 장으로 담을 수 있는, 식물을 학술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사진보다 더 특화된 방식'이라는 거였죠.



식물세밀화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본 후에는 직접 공원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에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었고, 수강생들은 각자 식물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그 식물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열매와 겨울눈을 반으로 갈라 보기도 하고, 하나의 씨앗인 줄 알았던 곳에 수백 수천 개의 진짜 씨앗들이 숨어있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점점 식물과 그림에 깊게 몰입해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월 한 달, 12시간을 오로지 한 식물을 그리고 관찰하는 과정에 몰두하다 보니 서울숲에 살고있는 목련과 친구가 되었다는 분, 상수리나무와 사랑에 빠졌다는 분, 에키네시아를 반려식물로 기르게 된 분, 가지 많은 산딸나무와 애증의 관계를 맺은 분, 키 큰 툼리나무에게 반하게 됐다는 분 등, 참여한 수강생들은 모두 식물과 다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8월, 10월, 계속해서 식물세밀화교실이 서울숲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주말에 운영되니, 식물과 친해지고 싶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강생 후기>

“호기심으로 들었던 수업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개발해주는 것 같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_홍만기

“가지가 많은 산딸나무를 골라 그리는데 고생했어요. 식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 식물을 계속 보다니 식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_이현철

“상수리나무 그림. 무심히 지나갔던 작은 이파리들도 자세히 보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연이 이렇게 예쁘구나 느끼게 되었고, 다른 식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_한숙남

“식물을 이렇게 까지 들여다 보는 것이 쉽지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_식물세밀화 강사 조혜련



이야기가 있는 서울숲

이야기가 있는 서울숲은 서울숲직원과 함께 서울숲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입니다.




- 2020년 3월 ~ 12월 매주 토요일 10:30, 14:00 • 현장 참여
- ※ 기상상황 등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숲 수시 소독 실시 안내



서울숲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공원 곳곳, 방문객의 손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에탄올 소독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민 감염 예방행동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1.27.

의심되면 병원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 / 1339 / 120**